

율법의 옛 틀에서 복음의 새틀로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신명기10:16, 갈라디아서1:6-12

정운돈 목사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정한 날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응답과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여,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육이 정금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교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찬양 세미나를 했다. 새로운 것 같았다. 찬양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다. 찬양은 창조주의 사역이다. 찬양하는 것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물질은 아니지만, 여기서 많은 단어, 문장, 아름다운 노래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창조주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주의 최초 물질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탈레라는 사람은 우주는 물로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소리와 말씀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면 그것이 진동이 된다. 이것이 빛의 파장이다. 과학자들은 이 빛과 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하니 우주의 최초의 물질은 진동하는 끈으로 되었다고 물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바로 소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론, 물질적으론, 세상적으론, 진리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남쪽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견해를 남갈라디아설이라고 말한다. 왜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지 잘 모른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주로 사역을 했던 지역이 남쪽의 갈라디아 지역이었다. 처음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한다. 성경이 아닌 것 같다. “다른 복음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두 번이나 이야기 한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복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오직 예수 빼고는 다 양보해야. 양보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은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 삶의 기준이 치유되기를 축원한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한 예사가 한 동안 더 마음 속에 공감이 된 것이 있다. 길거리에서 공사 중이면 ‘보행에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다. 우리들도 다 이렇게 붙여놔야 한다. 우리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 교회,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도 많은 피해를 준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 딱지를 떼는 날이 오는 줄 믿는다.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된 중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행하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이단들이 이렇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 안장중 증인회에서는 지금도 유일결, 안식일, 초막절, 오순절을 지킨다. 그래서 물어봤다. ‘안식일을 몇 번 빼먹어야지 자옥가요?’ 기준이 없다. 안 지키면 자옥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공사 중이더라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며 인격도, 성격도 바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옛 틀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새 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상관관계인 것 같다. 내가 옛날에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회관에서 자유신학을 연구하셨다. 그 분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책을 얇게 쓰셨다. 이 분이 얼마나 잘 썼을까? 하고 책을 읽어봤더니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 더 헛갈리게 쓰셨다. 그래서 이 분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번에 질문을 드렸다. ‘율법을 지켜야 해요? 안 지켜야 해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 잘 대답하셨다. 지켜야 한다. 도둑질해야 하는가. 살인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한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율법이 아닌가? 율법이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 왜 그런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복음보다 강조하게 되면 되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고 청소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러나 계속해서 청소해야지 하면 청소주의가 되는 것이다.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속적으로 만든다. 설거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보다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된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강조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복음인줄을 믿기를 바란다. 다른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는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행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되어 준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는 알아야 한다. 영과 육과 혼이.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쪼리라는 분도 있을 것이다.(웃음) 성공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부자같은 분들은 심플하다.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이폰도 심플하지 않은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잘되면 그 성공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야할 길

은 알아야 한다.

구약의 율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로 변하게 된다. 없어진 율법제도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했을 때, 정리를 안 해서 혼란이 되는 것이다. 율법에도 다양한 율법이 있다. 없어진 율법도 있다. 제사제도이다. 여러번 제사를 지내는가. 유일절같은 절기를 지키는가. 성막을 짓는가. 지성소는 없어졌다. 구약율법 중에는 없어진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없어진 것 같지만 변화된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는 지금 안식일이 유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모든 절기제도가 유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예배, 구역예배, 새벽예배로 모두 예배로 바뀌었다. 또한 순화된 율법이 있다. 더 잘해야 하는 것들이다.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신약이다. 구약은 도둑질을 안 하면 된다. 구약을 깊이 보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한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주님의 뜻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변화를 원하셨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도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의 본질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 곡해하면 이 좋은 신앙, 교회를 가지고 이상하게 율법주의 쪽으로 쉽게 가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1. 우리들이 깨뜨려 버려야 할 율법주의의 옛 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 (1)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시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다. 율법주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보다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 결국은 망할 것이 된다.
- (2) 율법을 약용하고 있는 이단들의 잘못된 틀을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깨뜨려야겠다. 율법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속임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으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것을 하겠는가. 한 번 생각해 보라. 요즘은 보이스트림,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기를 친다. 어떤 분이 IT 전문가인데 보이스트림을 당해서 큰 돈을 입금했다고 한다. 근데 마침 은행에서 ‘여기 계좌에 입금하셨죠?’ 하면서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70만원은 인출이 되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나마 나머지 돈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많다. 여러분, 남에게 전화로 사기를 쳐서 가져 계좌에 돈을 입금하려고 살라고 하면 살겠는가. 어렵다. 연쇄살인도 있다. 사람을 계속 죽이라고 하면 계속 죽일 수 있겠는가. 여기 계산 분할 중에서는 한 분도 없을 줄도 믿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각자 말씀을 가지고, 이단인 것을 알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데 사단의 영, 다른 영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 가정, 교회를 지켜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신천지, 여호와 의 증인, JMS, 하나님의 교회, 다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를 교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변질시켜서 사람을 교란시키는 것이 이단이다.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 주동자들 다 안다. 사기치는 것이지. 그러나 중간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다. 베드로도 말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여러분이 최소한 이단, 삼단, 구분할 수 있는 지식 정도는 가져야 한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 우리는 특별히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 (3)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빼앗기는 할례주의사상을 깨뜨려야겠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형제들의 주장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말했다. 이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 사단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참 자유, 참 해방을 얻었다. 그런데 이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려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다. 누가 아프겠는가. 사단이다. 그 사단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얽어매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은 영원히 누리기를 바란다. 방종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끊고 버리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보면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이 있다. 그것은 주인이 ‘나는 나가고 좋다.’ 노예 해방을 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노예가 스스로 말한다.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 증거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귀에 구멍을 뚫었다. 우리는 귀에 구멍이 뚫린 자들이다. 스스로 주님 앞에 종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제 너무 편하니까. 주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한가. 여러분은 귀에 구멍 뚫린 사람이다. 주일날 늦잠 자고 놀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육적인 편안함을 버려버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지 않은가. 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이 자유를 잘못된 곳에 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 (4) 그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자유를 빼앗으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한 시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2장 3 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잊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들에게 끌려가면 인생 전체가 종 된다.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자유한가. 감사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웃음) 조금 육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회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교수직을 하시는데 강의를 너무 잘 한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다. 저 분이 하다가 잘 안 풀리면 낙심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강의 중에 그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난과 절망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은 천국에서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면서 예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다 버리고

천국에 오라고 했다고 한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벽돌만한 금덩이 하나를 만들어서 힘들게 들고 갔다. 그런데 천국 입구의 천사가 그에게 뭐냐고 물었다. “이거 금인데요. 하나님한테 허락받았어요.” 하니 그 천사가 무엇이냐 했는지 아시는가. “왜 보도블럭을 가져오세요?” 했다고 한다. 천국에서는 다 금으로 깔렸으니 보도블럭인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그런다. 수준을 높여야를 바란다.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세상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일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주셨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마음의 할례는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일단 달란트를 탐강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손을 살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잘못된 마음을 바꾸고 끊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과 몸에 함께 하는 할례인 것이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몸이 안 된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는 것이다. 봉사도 마찬가지로이다. 오늘도 식당에 갔더니 소수의 분들이 수고하시더라. 정말로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교회를 위해서 작은 봉사, 헌신을 우리가 바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시겠는가. 식당에 일할 분이 부족하면 미리 교역자들에게 말해라. 청년들이 해주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원니스를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드러져야 한다.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할례만 주장했다. 결국 할례의 제도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맺게 된 피 언약과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정욕에 끌려 다니는 인간들의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질러버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거짓선지자들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은 이러한 율법 제도들을 협박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기, 안식일을 가지고 협박한다. 신친지는 14만 4천명 안에 들어와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협박한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성령충만하여 주님을 따르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넘쳐서 그 길을 가야 한다.

2.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새 틀을 무엇인가.

(1) 복음이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지혜롭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에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을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오직이 되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이 가져주신 것이다.

(2) 복음은 정상적인 영적인 정통을 통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통로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성경에 나온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 바울뿐이다. 신 사도, 이런 것 없다. 이후에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계시된 성경말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이단들이다. 이 사도들의 정통을 따라서 그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오늘 우리와 같은 정통교회인줄을 믿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과 무덤, 칼빈의 정통을 안 따르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상한 신 신학으로 빠졌다. 한국교회도 오직 예수를 주장해야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의 정통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울부짖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단이라고 비난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한기총에 들어가고 정통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완전 복음에 바로 서서 한국 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3) 복음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은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4) 복음이란 성령의 역사이다.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복음이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지로는 복음, 창조주 하나님, 영생, 지옥 믿어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 안 믿어진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역사 하나면, 어떤 책을 보니까 너무 공감된다. 하나님

이 이미 성령으로 마음을 역사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한다. 믿음의 불이 탁 커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플러그를 꽂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다 찢어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불이 탁 커지면,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것이다. 너무 쉬운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성령의 역사가, 불이 확 커지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율법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며 살았던 것이다. 레위기 19장이다. 레위기는 율법이 가득 차있다.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 레위기 안에 다 있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맞는 율법주의를 골라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다섯 가지 미션 CVDIP를 생각해 보자.

1. 언약이다.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언약의 말씀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2.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참되고 영원한 우리들의 비전은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일천만 제자를 세워서 237개국 나라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우리들의 꿈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는 지식에 잘 자리나서 모든 잘못된 이단과 종교와 3단체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꿈을 꾀야 한다. 이단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이단상담소를 잘 만들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 많이 받은 청소년들을 살려야겠다. 무엇이 무섭겠는가. 우리가 약간 도전하고 원니스가 되면 그 놀라운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도전해야 한다.
4. 이미지와 기도이다. 복음이 완전히 나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믿는 기도와 묵상 속에서 24시간 도전해 보라. 체질화되지 안 되면 율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바로 튀어나온다. 어떤 사람이 ‘이게 문제네.’ 하면 ‘괜찮아.’ 이것이 복음체질이다. 그런데 ‘어쩌지? 왜 그때위로 해.’ 하면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이 체질화되지 못한 것이다. 복음화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한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특성이 뭐냐면, 내게 손해가 생기면 뒤집어진다.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 상해진다.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다. 화를 내고 자기를 주장한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양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양보하기를 바란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5.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미션이다.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심각성을 알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이단들을 찢어보라. 여호와의 증인이 서 있지 않은가. 가서 대화도 해봐라. 대화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단 안에 깨질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이 없든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자국을 밟아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바란다. 가끔 여호와의 증인 성전에 간다. 가서 ‘지옥가세요.’ 말하고 나온다.(웃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안타깝다. 처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너무 깨닫지 못하면 욕 나온다.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래. 내가 깨달은 것이 은혜구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도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 그 중에서 돌아올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단들의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도전하며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틀, 합성, 울무에 갇혀서 진도를 못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베드로도 되었는데, 여러분이 신간표를 앞당기기를 바란다. 빨리 틀을 깨다. 나 중심을 없애라. 오직 예수로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행복하구나.’ 느껴져야 한다. 표정부터가 마귀표정이면 안 된다. 은혜표정, 행복표정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도 단 한 순간도 이 복음과 은혜와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평생 무장되어야 한다. 이번 주는 내 안에 있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바란다. 우리 안에 혼탕되어 있다. 찾아서 정리해야 한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모든 율법적인 틀을 복음의 새 틀로 바꾸는, 그리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로 이 위대한 복음, 값어치 있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와 단체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행복한 참사관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길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 램프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축복된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암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